



100년을 향한 희망과 나눔

100년을 향한
희망과 나눔



100년을 향한 희망과 나눔

현대오일뱅크 창립 50주년 기념 화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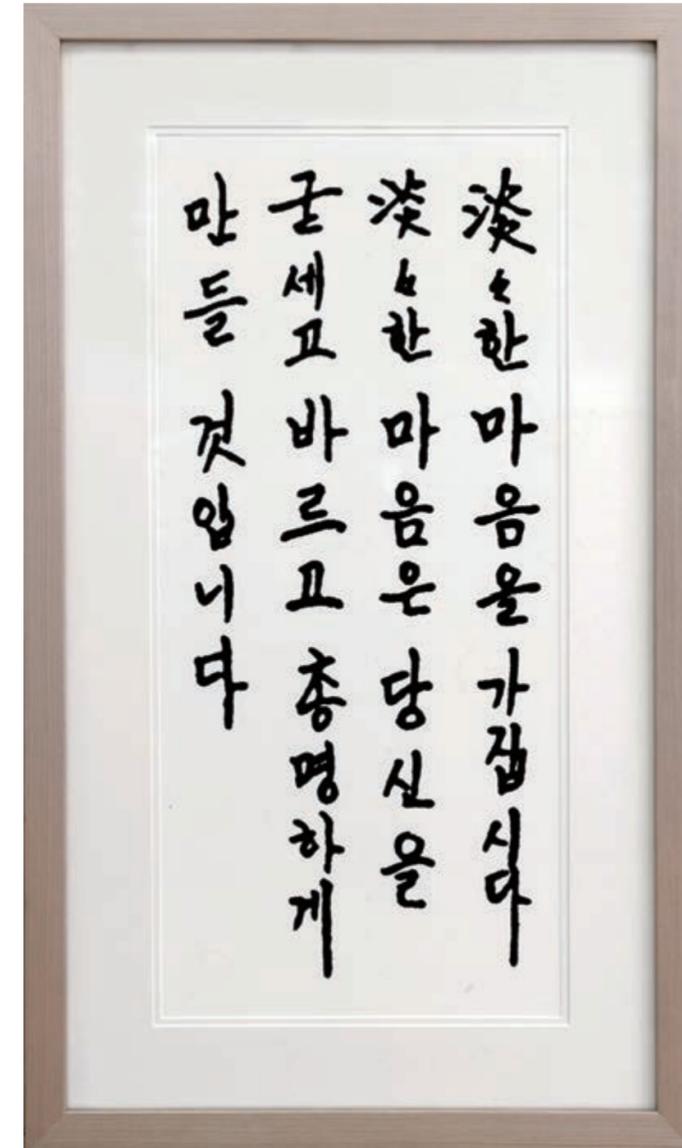
Hyundai
Oilbank 



사훈



峨山の 글





100년을 향한 희망과 나눔

현대오일뱅크가 창립 50주년의 역사를 정리하여 화보집으로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회사를 위해 헌신해 주신 여러 선배님들의 노고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1964년,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최초의 민간 정유회사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국내 유탄유 생산업체에 양질의 조유(粗油)를 공급하기 위해 부산의 한 어촌에 특수 공장을 설립한 것이 대장정(大長程)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5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현대오일뱅크는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주역으로 경제발전을 이끌었고, 이제 명실공히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현대오일뱅크의 반세기는 시련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빈약했던 창립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했고, 조석으로 거친 물살이 드나들던 서해 갯벌 위에 하루 39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원유공장과 석유화학 설비를 훌륭하게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경영권이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는 힘든 시기도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2010년 현대중공업 가족으로 출범한 이후에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공고히 다지며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고도화 설비와 하루 2만 배럴을 처리할 수 있는 유탄유 공장이 차례로 준공되어 안정적 가동을 하고 있고, 울산신항에 오일터미널을 건설하여 유류 저장사업도 시작하였습니다. 롯데케미칼과 콘텐사이트 정제 및 MX 제조설비를 추진하는 등 지속성장의 토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이 월급의 1%를 기부하며 사회 곳곳으로 희망을

전파하고 있고, 이러한 1% 나눔 운동은 주유소와 협력업체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는 다가올 새로운 50년 역시 희망과 나눔의 시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진정한 이웃'이 되고자 합니다.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추억이 가져다주는 진한 감동도 있겠지만, 지난 여정 속에서 겪었던 시련과 교훈, 그것을 극복해내는 불굴의 정신을 되새겨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끝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성공신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도약을 위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경영시스템과 기업문화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혼신의 열정과 땀으로 점철된 반세기 역사를 200여 페이지 책 한 권에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나온 50년을 함께한, 그리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갈 현대오일뱅크 가족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뜻깊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회사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모든 전·현직 임직원들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현대오일뱅크를 사랑하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사장 권오갑

권 오 갑

Contents

인사말	4~5
-----	-----

History	태동 그리고 개척	16~53
	극동석유공업, 국내 최초 민간 정유사의 태동	
	극동정유(주)로 새로운 도약	
	대산의 시대를 열다	
	• Monument 1 아산과의 만남	

	現代, 도전과 시련	54~93
	현대정유로 제2의 창업	
	증설 및 인수를 통한 비약적 성장	
	외자 유치 및 現代 계열 분리	
	• Monument 2 돌아온 사훈석	

	현대중공업 가족, 최고를 향한 시작	94~129
	현대중공업 가족이 되다	
	사업다각화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다	

Humanity	동행	130~151
	현대오일뱅크1%나눔재단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	

	상생	152~173
	협력적 노사관계	
	임직원 소통과 공감	
	동반성장 파트너십	
	고객 감동 마케팅	

Future	비상	174~183
--------	----	---------

Appendix	발자취	184~199
	연표	
	광고 변천사	
	브랜드·주유소 변천사	

Dreaming

에너지 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현대오일뱅크의 꿈은 대산공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에너지로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Challenging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 왔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더 높이 도약하겠습니다.



Creating

현대오일뱅크는 최첨단 설비와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놀라운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글로벌 넘버원을 향한 무한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Sharing

사람을 생각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희망에너지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HISTORY

- 태동 그리고 개척
- 現代, 도전과 시련
- 현대중공업 가족, 최고를 향한 시작

태동 그리고 개척

—

1964~1992

국가 에너지 85%가 석탄과 땃감 나무였던 시절,
석유산업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1964

극동석유공업, 국내 최초 민간 정유사의 태동

1964년 11월 19일 설립등기를 마친 극동석유공업은
1965년 12월 31일 부산 용당동 부지 12만㎡에
하루 3,000배럴 규모의 공장을 완공했다.



초기 부산공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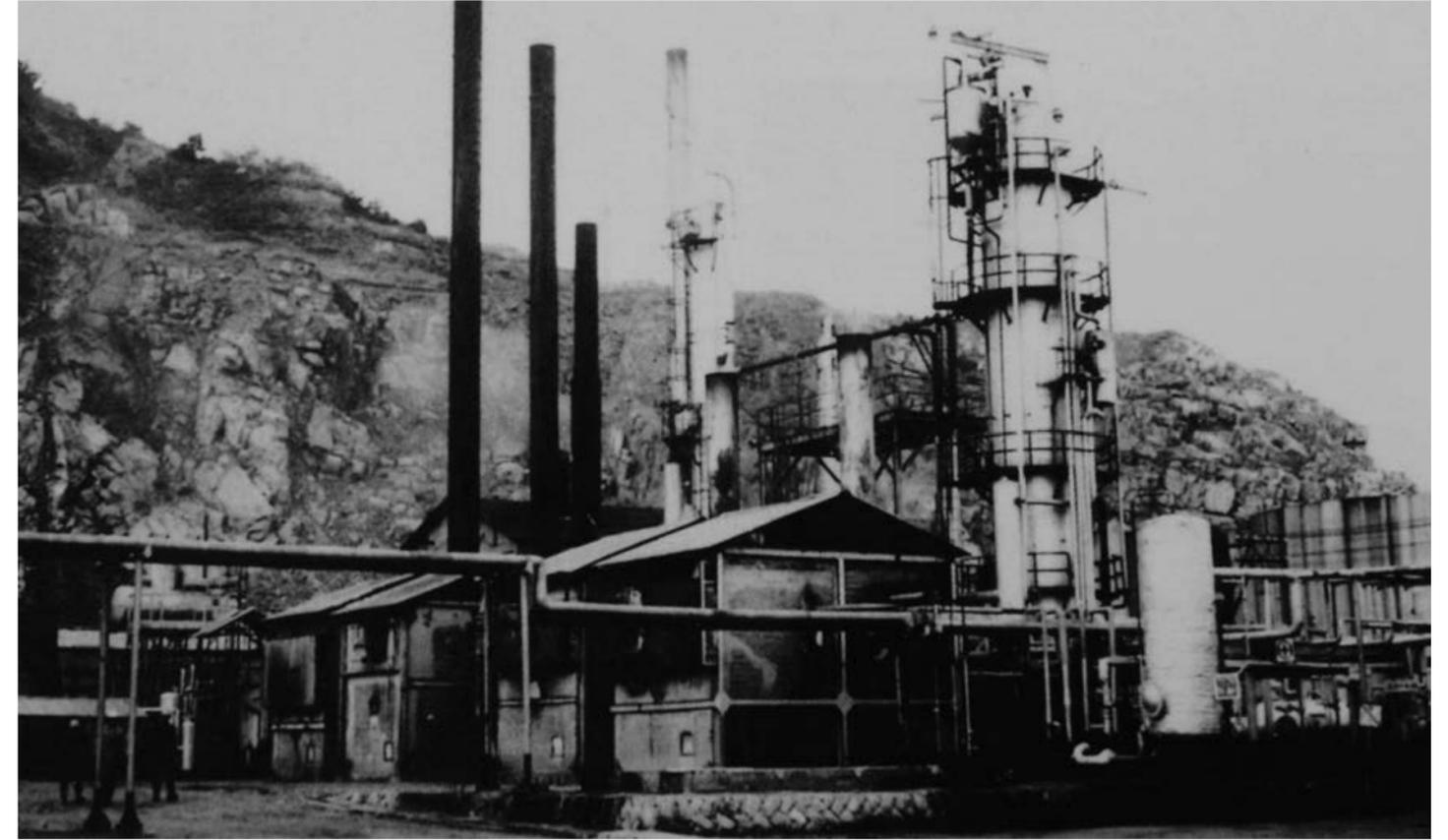
“극동석유공업은 부산공장을 완공, 우리나라 조유(粗油) 국산화의 길을 열었다. 국내 유회유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함은 물론 연료유와 아스팔트도 생산하게 되었다. 부산공장은 특히 외국자본이나 외국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한 국내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점, 설계부터 시공까지 자체기술과 노력으로 건설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극동정유 25년사』에서



정상 가동 중인 감압증류탑

힘차게 뿜어나오는 진공제트는 당시 극동석유공업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부산공장 주요 설비

가운데 초유탑을 중심으로 양쪽에 세워진
상압증류탑(왼쪽)과 감압증류탑(오른쪽)



극동석유공업의 초창기 운전 관계자들



1966 **윤활유분, 아스팔트 생산**
원유정제와 함께 윤활유분과 아스팔트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시작한 극동석유공업은 1966년 5월 첫 제품을 생산했다.



1967
블로운 아스팔트 개발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한 블로운 아스팔트(Blown Asphalt)는 기존 제품에 비해 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1967년 초 처음으로 철도청에 납품하며 전국적으로 판로를 넓히기 시작했다.



1968 **윤활유 용제탈납장치 준공**
윤활유분의 품질 및 상품성을 개선하기 위해 용제탈납장치(MEK)를 준공했다.



▶
셸과의 합작 이후 합동중역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장홍식 회장
(중앙 정면)

1968

극동셸석유(주) 사명 변경

극동석유공업은 일대 도약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적인 석유기업 로열더치셸(Royal Dutch Shell)사와 합작투자 및 차관공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고, 사명도 극동셸석유(주)로 변경했다.



종로 탑골공원 옆에 위치했던 극동셸주유소



1969

고급유탄유 배합공장 준공

셸사와 합작 이후 첫 번째 시설확장사업으로 고급유탄유 배합공장을 준공했다. 이후 1973년 극동셸판매(주)를 설립하면서 제품 생산과 판매를 분리해 경영하기 시작했다.



부산공장 야적장에 쌓아 놓은 유탄유 제품들



1972

감압증류시설 확장

Heavy Waxy Oil을 생산하기 위해 제2 감압증류탑을 건설함으로써 기존 2,000배럴에서 3,000배럴로 처리능력을 높였다.

1972

상압증류시설 확장

감압증류탑 건설과 동시에 상압증류탑 보수를 시작해 기존 3,000배럴에서 5,000배럴로 처리능력을 높였다.





1977

극동석유(주)로 사명 변경

한국에서 철수하는 쉘社의 지분 50%를 현대가 인수함에 따라 극동셸석유(주)는 극동석유(주)로, 극동셸판매(주)는 세일석유(주)로 사명을 변경했다.



부산공장에서 제품출하를 기다리는 탱크로리



1978

일산 1만 배럴 증설

1970년대 중반 국내 석유제품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자 극동석유는 정제시설 증설을 추진했다. 1만 배럴 규모의 상압증류탑을 신규로 건설하고 이에 맞춰 7,000배럴 감압증류탑도 연이어 준공했다.



1981 극동도시가스(주) 설립
 1980년에 극동석유는 국내 에너지 다원화 정책에 따라 정유업계 최초로 도시가스공급사업자로 선정됐다. 1981년 3월 5일에 극동도시가스(주)를 설립, 천연가스(LNG)를 공급하며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1981 용제추출시설(FRU) 건설
 국내 최초로 용제를 사용한 하루 2,000배럴 규모의 윤활유 불순물 추출시설을 건설했다.



1983 제2 용제탈납시설 건설
 고급윤활유 생산에 필수적인 용제탈납시설(MEK)의 용량 부족으로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자, 극동석유는 하루 1,000배럴 규모의 제2 용제탈납시설을 건설했다.

1988

극동정유(주)로 새로운 도약

극동석유는 명실상부한 정유회사의 면모를 갖추고자 사명을 극동정유(주)로 변경했다. 동시에 '크린에너지' 슬로건, CI, 심벌마크, 마스코트를 제정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기업 이미지를 확립했다.



극동정유로 탈바꿈한 주유소의 모습



극동정유는 심벌마크와 마스코트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기업의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노력했다.



심벌마크



마스코트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에 위치한 극동정유 사옥



극동정유는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보람을 느끼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89

대산의 시대를 열다

1989년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을 대죽리 일대, 극동정유는 하루 6만 배럴의 첨단 원유정제시설과 국내 최초 3만 4,000배럴의 중질유 분해시설을 갖춘 대산공장을 준공하며 서해안 시대를 열었다.



극동정유 대산공장 준공식



1989 대산공장 준공

1989년 11월 13일, 극동정유가 공사 6년 만에 대산공장을 준공했다. 충남 서산시 대죽리 일대 181만 5,000㎡(55만 평) 부지에 세워진 대산공장은 서해안 최초의 정유공장으로 하루 6만 배럴의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규모를 갖췄다.



“ 지도를 바꾸어 놓은 이 땅에서 오늘 극동정유주식회사의 대산공장 준공을 시발로 서해안 개발에 대한 우리의 원대한 꿈이 이제부터 하나씩 결실을 맺어갈 것입니다. ”

1989년 11월 13일, 노태우 前대통령 치사에서





1985년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완료된 대산공장 부지



1987년

원유탱크 등 중량물 설치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대산공장



1988년

막바지 마무리 공사가 끝난 대산공장

“충남 대산은 정유공장이 입지하기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갖추고 있었다. 첫째, 매립지 외항의 수심이 깊어 VLCC(대형 유조선)의 입출항이 용이하고 둘째, 수도권과 수송거리가 가까워 도시에 저유황유 공급이 유리하며 셋째,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져 공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낙후된 서해안 지역에 공장을 건설해 지역사회 균형발전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

『극동정유 25년사』에서



지반강화, 콘크리트 공사



감압증류탑 설치 공사



철근구조 공사



원유저장탱크 공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대산공장의 모습



1986 대산공장과 천안을 잇는 송유관 공사
대산공장 건설과 함께 대산공장에서 천안까지 92.5km에 이르는 송유관 공사도 진행했다.



1989 천안저유소 준공식
당시 이봉서 동력자원부 장관(사진 오른쪽부터 4번째)과 극동정유 장홍선 사장(사진 왼쪽부터 4번째) 등이 참석해 준공 축하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극동정유, 존립의 기로에 서다

대산공장 준공으로 인한 행복도 잠시, 극동정유의 경영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1990년, 막대한 건설 공사 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동에서 걸프전쟁이 발발했다. 국제유가는 급등했고 중동산 원유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설상가상 새로 지은 중질유 분해시설에서 화재가 발생, 극동정유는 창사 이래 최대의 경영위기에 봉착했다.



화재가 발생한 중질유 분해시설

극동정유 경영위기에 차질

극동정유가 외국정유사와의 합작을 둘러싼 대우주권 및 이익으로 유상증자결의를 얻기 어려운 등 경영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瑞山大11에 있는 극동정유의 원유정제시설.

瑞山 極東정유 분해탑폭발
기름 2백여드럼 불타...住民들 대피

【瑞山 14일 특보】 瑞山 極東정유 분해탑이 14일 오후 1시 30분경 폭발했다. 폭발로 기름 2백여드럼이 불타올랐고, 주민들 대피를 당했다. 화재는 원유정제시설에서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은 불확실하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에 힘쓰고 있다.

現代-前사장측 외국社 합작조건 이견
임시주총 1,500億유상증자 결의 못해

극동정유가 외국정유사와의 합작을 둘러싼 대우주권 및 이익으로 유상증자결의를 얻기 어려운 등 경영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瑞山大11에 있는 극동정유의 원유정제시설.

瑞山 極東정유 분해탑폭발
기름 2백여드럼 불타...住民들 대피

【瑞山 14일 특보】 瑞山 極東정유 분해탑이 14일 오후 1시 30분경 폭발했다. 폭발로 기름 2백여드럼이 불타올랐고, 주민들 대피를 당했다. 화재는 원유정제시설에서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은 불확실하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에 힘쓰고 있다.

출처: 1991년 11월 22일 동아일보(상), 1991년 2월 14일 연합뉴스(하)



극동정유 주주총회

현대그룹은 극동정유 주주총회에서 장흥선 前사장의 주식 지분 30.5%를 넘겨받아 경영권 인수를 매듭지었다.

경영권 분쟁으로 잠기간 표류해 온 극동정유가 최대주주인 현대그룹과 장흥선 전 사장이 주식 양수 양도에 대해 합의하고 외환은행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경영정상화의 물꼬를 마련했다.

현대와 장 전사장은 최근 만나 장씨가 보유하고 있는 극동정유 주식 30.5%를 현대가 정량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대는 지난 25일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 신규투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외환은행은 28일 이를 최종 승인했다.

현대가 장 전 사장의 주식을 인수하게 되면 기존 지분 50%와 함께 모두 80.5%를 보유하게 돼 극동정유의 경영을 전담하게 된다. 정확한 주식 인수대금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극동정유의 자본금이 2천6백여원에 달해 장 전 사장의 주식가격은 약면기모만 8백11여원에 이르고 있고 일평균

경영분쟁 극동정유 현대그룹 인수확정

외환은행, 장흥선 전사장 주식양도 승인

요구하며 종자에 반대하는 현대에 맞설 방침이 없었던 것이다.

지난 54년 설립해 국내 정유시장의 8%를 점유하고 있는 극동정유는 70년 합작회사인 회사가 될 수 없으니 경영에는 직접 간여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정유시설 증설 등으로 경영이 부실해지면서 91년 이후 현대와 장 전 사장 사이에 경영권 다툼이 계속돼 왔다.

현대와 외환은행의 승인을 받아 오는 30일 임시주총에서 주식인수 작업을 매듭짓는 대로 2천여명의 추가종자와 사실상 문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도 극동정유의 인수로 정유에서 석유화학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루게 됐으며 정유업을 석유화학과 연계시켜 주력업종으로 육성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유업계에 일대 변모가 예상되고 있다.

박광수 기자

출처: 1993년 6월 29일 한겨레신문(좌), 1992년 4월 10일 경향신문(우)

30년 극동의 시대가 막을 내리다

극동정유의 경영난이 계속되자, 정부 주도의 위탁경영으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그러나 경영정상화는 끝내 이루지 못했다.

계속된 누적적자로 부도위기에 몰리자 결국 현대그룹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극동의 최대주주인 현대는 수차례의 주주총회를 통해 지분 85.88%를 확보, 극동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1993년, 창사 30년을 눈앞에 두고 극동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Monument 1

아산과의 만남

현대정유의 출범과 도약은
아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도전과 실천을 강조했던 峨山 정주영.
우리의 가슴속에 늘 아버지로 남아 있는
아산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처럼 굴곡진 50년을 보내온 지금,
다시 한 번 당신을 생각하며 더 힘찬 미래를 다짐합니다.



1996 현대정유 20만 배럴 증설 준공식에 참석한 峨山 (사진 왼쪽부터 7번째)
 現代 가족으로 추진한 첫 사업, 대산공장 20만 배럴 원유정제시설 증설.
 峨山을 비롯한 현대그룹 가족들이 총출동해 현대정유의 도전에 박수를 보냈다.

“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 반드시 된다는 확신 90%에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로 완벽한 100%를 채우지,
 안 될 수도 있다는 회의나 불안은 단 1%도 끼워 넣지 않는다.”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에서



1997 오일뱅크스 창단식에 참석한 峨山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 늘 앞장섰던 峨山은 현대정유 아이스하키단
 ‘오일뱅크스’ 창단식에 참석해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 체육은 체육 경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체력과 정신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진취적인 가능성의 정신을 심어 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런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이끌고
 국민에게 패기와 진취력을 심어 주면 한국의 모든 분야는 활력에 넘치게 될 것이다.”

HISTORY

- 태동 그리고 개척
- 現代, 도전과 시련
- 현대중공업 가족, 최고를 향한 시작

現代, 도전과 시련

—

1993~2009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에는 수많은 도전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1993

현대정유로 제2의 창업

극동정유가 현대정유로 새롭게 태어났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현대'의 막내로서
국내 정유산업에 거침없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대정유는 제2의 창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기업의 꿈을
펼치기 시작했다.



새롭게 바뀐 현대정유 대산공장 정문



현대 계동 사옥 앞에서 기념 촬영 중인 임직원들의 모습



본사로 승격된 대산공장에서 임직원들이 각오를 다졌다.

現代精油

HYUNDAI OIL REFINERY CO., LTD.

“ 지난 6월 30일 주주총회를 통해 향후의 모든 경영을 현대그룹에 일임하기로 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현대정유로 다시 태어나는 일련의 준비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서울 내자동 본사를 계동 현대빌딩으로 이전하였고 동시에 대산공장을 대산본사로 변경하였으며, 7월 26일에는 마침내 상호를 현대정유로 변경함으로써 현대 가족의 일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정유가 빠른 시간 내에 국내 정유업계의 선두자리에 오르는 것은 물론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993년 8월, 대표이사 사장 심현영, 대표이사 부사장 정몽혁
임직원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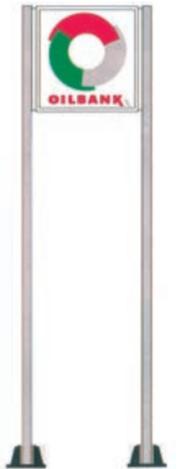
오일뱅크(OILBANK) 브랜드를 도입한 주유소의 모습



1994

국내 최초 주유소 브랜드 도입

현대정유로 사명을 바꾼 지 1년, 주유소에 '오일뱅크(OILBANK)'라는 브랜드와 CI를 도입해 정유업계에 획기적인 바람을 일으켰다. 원형으로 연결된 오일뱅크 심벌마크는 연속성, 무한성을 표현하며 최상의 에너지 공급, 신기술 개발,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를 상징했다.



▶ 사진 왼쪽부터
임채원 부사장,
정몽혁 사장,
최화진 부사장



1995 현대정유판매주식회사 출범

현대정유는 판매망 확충을 위해 세일석유와 영진석유를 통합해 현대정유판매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석유정제시설 20만 배럴 증설에 대비한 직·자영주유소 780개를 관할, 영업망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1996 유조선 대산항 첫 입항

현대정유의 전용 유조선인 현대스타호가 원유 190만 배럴을 싣고 대산항에 첫 입항했다.





씨네드림 영화제

1994

다양한 마케팅 활동 강화

씨네드림 해변 영화제, 자동차 영화제, 그리고 주유소 방문 고객을 위한 KISS서비스 등 다양한 고객 마케팅은 세간의 화제를 불러 모았다.

1995

카레이싱팀 창단

모터스포츠의 불모지였던 국내에 최초로 카레이싱팀 '오일뱅크'를 창단하고 후원했다. 오일뱅크팀은 창단 이후 5년 연속 한국모터챔피언십(KMRC)시리즈 정상을 차지하는 등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국내 대표 레이싱팀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현대오일뱅크가 생산한 최첨단 제품을 레이싱팀에 적용해 큰 마케팅 효과도 거두었다.



1997 아이스하키팀 창단

우리나라 세 번째 실업 아이스하키팀 '오일뱅크스'를 창단했다. 창단 이후, 2000-2001 한국리그에서 우승했고, 아시안컵에서는 일본 및 중국 대표팀과 대등한 경기를 치르는 등 아이스하키 팬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1997 JOYWHITE

현대정유는 젊고 참신한 기업 이미지를 고객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했다. 1997년 겨울, 강원도 횡성 현대성우리조트에서 시작된 아마추어 스키대회 '오일뱅크 조이화이트'가 대표적이었다.

1996

증설 및 인수를 통한 비약적 성장

1996년 5월 28일, 대산공장에 20만 배럴 규모의 원유정제 설비를 증설하며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전국에 저유소를 확대 신설하고 1998년 대산공장 BTX 설비를 완공하며 석유화학분야에까지 보폭을 넓혔다. 또한 1999년 산업계 빅딜로 불리던 한화에너지 인수까지 성공하며 현대정유는 단숨에 업계 3위로 뛰어오르는 비약적 성장을 이뤄 냈다.



20만 배럴 증설 준공식



1996

정몽혁 대표이사 사장 취임

정몽혁 부사장이 현대정유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며 공격 경영의 신호탄을 터뜨렸다. 정몽혁 사장의 취임과 함께 20만 배럴 공장 증설, 판매망 통합, 마케팅 강화 및 공격적인 주유소 유치를 이뤄 내며 극동정유 인수 3년 만에 처음으로 200억 원 흑자를 달성했다.

1996

주유소 1,000개 돌파

현대정유가 주유소를 1,020개로 늘리며 경질유 시장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렸다. 1993년 435개에 불과하던 주유소를 3년 만에 2배 이상 늘린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주유소를 170개까지 확보하며 영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다.





1996

20만 배럴 규모의 원유정제시설 준공

공사 시작 2년 5개월 만에 20만 배럴 원유정제시설 증설공사를 마무리지었다. 이로써 현대정유의 하루 원유처리량은 11만 배럴에서 31만 배럴로 늘어났다. 대산공장 175만㎡(53만 평) 부지 위에 건설한 이 시설은 상압증류공정, 나프타개질공정, 등·경유탈황공정과 제품 입·출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현대정유의 20만 배럴 증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내 수급안정과 석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둘째는 석유화학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정유는 앞으로도 하면 된다는 강인한 추진력과 창조적 예지, 그리고 적극적 의지로 국민들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1996년 5월, 20만 배럴 준공식, 정몽혁 사장 기념사에서



1996 전국 저유소 건설 박차

20만 배럴 규모 제2 공장의 본격적인 가동과 함께 전국의 물류 유통망 확보를 위한 저유소 건설이 시작됐다. 1996년 12만 배럴 규모의 강원도 옥계저유소를 시작으로 인천, 군산, 울산 등 약 260만 배럴 규모의 저유소를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오늘에 이르는 전국 유통망을 확보하게 되었다.



1998 BTX 설비 완공

대산공장에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벤젠과 파라자일렌을 생산하는 BTX 공장이 준공됐다. 연간 생산능력 40만 톤 규모의 BTX 공장은 8만 6,000㎡(2만 6,000평)의 부지에 건설됐으며, 총 2,50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생산제품의 80%가량을 수출,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리게 됐다.



1998 1,001마리 소떼 방북 지원

1998년 6월 16일, 정주영 명예회장이 500마리의 소떼를 싣고 오른 방북길에 현대정유도 힘을 보탰다. 충남 서산농장을 출발한 50대의 북송 차량에 경유 100드럼을 지원했고, 같은 해 10월 이뤄진 2차 방북에도 현대정유의 기름을 실은 차량이 501마리의 소떼와 함께 북한에 들어갔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직접 소떼를 끄는 모습



◀ 개성주유소(사진 왼쪽)와 한누리개성주유소(사진 오른쪽)

1998 북한 진출 1호 주유소, 금강산주유소

국내 정유업계 최초로 북한 금강산 관광단지에 주유소를 건설해 유류공급을 시작했다. 금강산주유소는 장전항과 금강산을 왕복하는 관광버스, 업무용 차량 및 관광단지 내 각종 편의시설에 연료를 공급했다. 2004년 개성공단에 개성주유소를 건설해 2008년까지 운영했고, 2008년에 한누리개성주유소를 건설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인천 한화에너지공장 전경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식

1999 한화에너지·한화에너지프라자 인수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하에 5대 그룹이 사업을 서로 교환하는 빅딜 과정에서 현대정유가 한화그룹의 한화에너지와 한화에너지프라자를 인수했다. 한화의 정유와 유통부문을 인수한 현대정유는 12%대의 시장점유율을 20%대까지 끌어올리며 업계 3위에 올라섰고 정제능력도 58만 5,000배럴까지 늘려 업계 2위인 LG칼텍스정유(현 GS칼텍스)를 바짝 추격하였다.

“ 우리 현대는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지난 52년 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오늘의 현대를 건설했습니다. 우리 현대정유도 한화에너지 인수를 계기로 세계 메이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초일류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실화를 기해야 하며 한화에너지의 성공적인 통합·운영을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999년 7월, 정몽혁 사장 창립 기념사에서

2000

외자유치 및 現代 계열 분리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현대그룹은 5대 핵심업종에 주력하고 79개 계열사 중 53개사를 계열분리, 합작·합병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 일환으로 현대정유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IPIC社로부터 5억 달러 규모의 외자유치를 성사시켰고,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해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었다.



IPIC社와 합작 체결식



합작 축하 리셉션에서의 모습

“ We at the Hyundai Group see the most promising future for this joint venture. We know that it will become a model for cooperation between two companies, and a model for the building of ties between an oil-producing country and an oil-importing country. We know that this partnership, Hyundai Oil, will be and remain one of the great refinery companies of the world, to the enduring benefit of its partners, and to the lasting credit of all who are present here today.”

1999년 11월, 합작 축하 리셉션, 정몽혁 사장 인사말에서

“ 현대그룹은 이번 합작사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본 합작사업은 양사의 사업협력을 넘어 산유국-수입국 간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대정유는 파트너에게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에게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세계적인 정유회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2000 다양한 전략적 업무 제휴

현대정유는 한솔CSN, 삼성카드, 한빛은행 등 여러 기업들과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어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한솔CSN, 삼성카드와 업무 제휴를 맺는 모습



2002년 취임한 서영태 대표이사 사장의 모습

2002 현대오일뱅크로 사명 변경

합작사인 IPIC가 추가 금융지원과 함께 경영에 본격 참여하게 됐으며, 서영태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사명을 '현대정유'에서 '현대오일뱅크'로 변경, 최고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갖춘 고객지향적인 정유회사로 변신할 것을 다짐했다.



2003 北에 첫 육로 수송
 국내 정유사 최초로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직접 유류를 수송했다.
 1998년 정주영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 지원에 참여했던 현대오일뱅크는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이후에도 대북 관련 유류사업을 계속 이어갔다.

2004 청정연료설비(CFP) 기공식

현대오일뱅크는 총 2,100억 원을 투입해 하루 6만 배럴의 초저유황 경유탈황시설과 하루 2만 배럴의 휘발유탈황시설, 시간당 4만 5,000m³ 생산 규모의 수소제조공정을 건설했다. 청정연료설비 건설을 시작으로 최고의 품질을 갖춘 친환경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했다.



2005

대산단지 납사배관 준공

대산공단 내 정유·석유화학 5개사가 상생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의 일환으로 '공동 나프타·수소 이송 배관'을 준공, 물류 협력을 본격화했다.



2007

성남기술지원센터 개소

제품 품질에 불만이 발생할 경우 시료를 72시간 이내로 분석함으로써 신속한 품질관리가 가능해졌다.

2007 비전 2012 선포식

국내 최고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춘 석유정제 및 마케팅 회사를 목표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런투유(Run to U)' 슬로건은 모든 자산을 업그레이드해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09 일본 코스모석유와 전략적 MOU 체결

일본의 대표적인 정유회사 코스모석유와 정유사업 전반의 전략적 협력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수출 협력과 기술 노하우 교환, 마케팅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제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 제휴를 통해 진입 장벽이 높은 일본 시장에 다양한 제품들을 수출할 수 있게 됐고, 한 단계 높은 선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Monument 2

돌아온 사훈석



돌아온 사훈석과 함께
잊었던 우리의 꿈을 마음에 새깁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사훈석, 현대정신을 되새기다

10년 만에 사훈석이 돌아왔다. 1997년 현대그룹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대산공장 앞마당에 세워진 사훈석. 무게 6톤, 가로 2m, 세로 1m, 둘레 5.7m 크기의 이 사훈석은 정주영 명예회장이 직접 쓴 현대그룹 사훈을 탁본해 제작한 것이다. <근면, 검소, 친애>는 대산공장 앞마당을 든든히 지키며 현대 가족으로서 직원들의 소속감과 현대정신을 일깨우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현대오일뱅크가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되고, 외국계 대주주에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사훈석은 자취를 감췄다. 임직원들은 경영권 교체로 버려진 줄만 알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사훈석의 행방을 묻지 않았다. 그로부터 약 10년, 현대중공업이 외국계로부터 회사를 되찾아 오면서 사라졌던 사훈석이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사훈석이 돌아오기까지는 김태경 노조위원장의 남모를 노력이 숨어 있었다.



김태경 노조위원장과 사훈석

외국계로 경영권이 넘어가 폐기될 위기에 처한 사훈석을 노조위원장이 사비를 털어 밤새 자신의 집으로 옮겨 놓았던 것. 현대중공업이 다시 외국계로부터 회사를 되찾아 오자 그동안 자신의 집에 보관해 오던 사훈석을 회사에 기증했다.

김태경 노조위원장은 “비록 경영권이 외국계로 넘어갔어도 회사의 뿌리인 현대 사훈석이 버려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다”며 “사훈석이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도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돌아온 現代의 품, 그리고 사훈석. 직원들은 현대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 한 번 꿈을 향한 힘찬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다. 현대중공업 가족으로 현대오일뱅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HISTORY

- 태동 그리고 개척
- 現代, 도전과 시련
- 현대중공업 가족, 최고를 향한 시작

현대중공업 가족, 최고를 향한 시작

—

2010~2014

최고가 되기 위한 꿈에 힘찬 날개를 달았습니다.

2010

현대중공업 가족이 되다

2010년 8월 12일, 계열 분리된 지 10여 년 만에 현대중공업의 가족이 되었다. 새롭게 세워진 대산공장 정문. 현대를 상징하는 H 정문은 새롭게 출발하는 현대오일뱅크의 꿈과 염원을 담았다.



현대중공업 가족 이후 대산공장 정문



2010 권오갑 대표이사 사장 취임
8월 12일 현대중공업에서 33년간 근무한 권오갑 사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대산본사를 찾았다.

“세계 최고의 종합중공업 회사, 현대중공업 그룹의 일원으로 새로운 도약을 맞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명예회장께서 평소 강조하셨던 것처럼 ‘일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일하는 사람이 귀히 여김을 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800여 명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내가 사장’이라는 적극성과 주인의식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권오갑 대표이사 사장 취임사에서

2010 현대 사훈 전달

현대중공업 민계식 회장 및 경영진들이 대산공장을 방문해 현대 사훈을 전달했다. 이날 경영진들은 공장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고 현장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직원들에게 현대중공업 가족이라는 자부심을 심어 주기 위해 노력했다.



2010 현대중공업 가족 대외 선언

전국 2,500여 개 주유소에 일제히 현수막을 걸어 고객들에게 현대오일뱅크가 현대중공업 가족으로 새롭게 출발함을 알렸다.



2010 소통 강화로 조직 안정화

권오갑 사장은 취임 후, 스킨십을 통한 임직원과의 소통을 중시했다. 배우자 현대중공업 견학, 등산, 체육대회, 월급봉투, 해병대 체험 행군 등 임직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기(氣)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정유업계에서 요즘 현대오일뱅크를 가리킬 때 쓰는 수식어는 ‘괄목상대(刮目相對)’다. 외국계로부터 이 회사를 인수할 때와 지금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다. 직원들의 자신감이 커진 것도 큰 변화 중 하나다. 주유소 업주 등 고객들이 회사를 보는 인식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2011년 8월 12일 한국경제신문 기사 발췌



2010 영업력 강화

권오갑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주유소 현장근무를 통해 영업 일선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노후된 시설 교체, 환경 개선, 광역본부 체제 도입, 마케팅 강화 등으로 영업력 강화에 주력했으며, 과거 10년 가까이 18%대에 머물던 국내 경질유 시장점유율을 23%대까지 끌어올렸다.

2011

사업다각화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다

제2 고도화, 제2 BTX, 윤활기유, 오일터미널, MX사업 등 적극적인 신사업 추진으로 원유정제에 치우친 사업구조를 탈피,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2009년(사진 아래)과 2014년(사진 오른쪽) 대산공장의 모습



- 2010년 이전 대산공장 공정구역
- 2010년 현대중공업그룹 가족 이후 추진, 증축된 공정구역

업계 최고 고도화율 달성, 제2 고도화 시설

2011년 준공한 제2 고도화 시설의 모습





2011년 제2 고도화 시설 준공식 모습
 사진 왼쪽부터 대림산업 김윤 사장,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 현대중공업 민계식 회장, 현대오일뱅크 권오갑 사장,
 일본 코스모오일 모리카와 부사장, 현대백화점 경청호 부회장, 현대오일뱅크 김태경 노조위원장



고도화 시설은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벙커C유와 아스팔트 등 중질유를 부가가치가 높은 휘발유나 경유로 전환하는 첨단설비다. 고도화 비율이 높을수록 부가가치가 높은 경질유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제 마진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 회사 수익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11년 총 2조 6,000억 원을 투자, 하루 6만 2,000배럴 규모의 제2 고도화 설비를 준공했다. 제1 고도화 시설(7만 2,000배럴)과 합쳐 하루 13만 4,000배럴의 고도화 능력을 갖췄고, 업계 최고 수준의 고도화 비율 34.4%를 달성했다.

석유화학 기업으로의 도약, 현대코스모

2013년 준공한 제2 BTX 시설의 모습





제2 BTX는 혼합자일렌을 원료로 석유화학의 기초가 되는 벤젠과 파라자일렌을 생산한다. 일본 코스모석유와 합작해 설립한 현대코스모는 석유화학 수요 대응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해 2013년 대산공장에 제2 BTX 설비를 준공했다. 이를 통해 연 50만 톤의 생산능력을 150만 톤까지 올리게 되었다. 현대오일뱅크는 전체 매출의 14%까지 차지하게 될 BTX를 통해 석유화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2013년 제2 BTX 설비 준공식 모습
사진 왼쪽부터 코스모석유 모리카와 케이조 사장, 코스모석유 기무라 아이치 회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현대오일뱅크 권오갑 사장, 이완섭 서산시장, 현대오일뱅크 김태경 노조위원장

“현대코스모는 모회사인 현대오일뱅크와 코스모오일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업계 최고의 석유화학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현대코스모 장지학 대표 인터뷰 중에서

또 다른 미래 성장동력, 현대셀베이스오일

2014년 완공한 윤활기유 시설의 모습





2013년 윤활기유 공장 기공식 모습
 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 현대오일뱅크 김태경 노조위원장, 이완섭 서산시장, 현대오일뱅크 권오갑 사장,
 마크 게인스보로우 셸 아태지역 대표, 권희태 충남도 부지사, 현대셀베이스오일 문종박 대표

“2014년 8월 제품 생산을 시작할 윤활기유는 현대오일뱅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대산이 수출전진기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현대셀베이스오일 문종박 대표 인터뷰 중에서



윤활기유는 윤활유의 기초 원료다. 여기에 각종 첨가제를 섞어 자동차와 선박, 각종
 산업용 등 다양한 윤활유 완제품을 만든다. 다국적 에너지기업 셸과의 합작법인인
 현대셀베이스오일은 2014년 4월, 대산공장에 최첨단 윤활기유 설비를 준공했다.

3만 3,000㎡ 부지에 들어선 공장은 하루 2만 배럴의 원유 부산물을 처리해 연간 65만
 톤의 윤활기유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현대셀베이스오일은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윤활기유를 수출해 2015년부터 연간 1조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최초 상업용 유류 저장사업 진출, 현대오일터미널

2014년 완공한 울산신항 유류저장 시설의 모습





국내 정유업계 최초로 자회사 ‘현대오일터미널’을 설립, 상업용 유류저장 시설을 준공했다. 울산신항 남항부두의 공유수면 8만 7,000㎡를 매립해 건설한 유류저장 시설은 5만 톤급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와 총 28만kl의 석유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35개의 저유 탱크를 보유하고 있다. 대형 탱크로리(20kl) 1만 4,000대를 한꺼번에 채울 수 있는 규모다. 현대오일터미널의 유류저장 시설은 향후 동남권 최대의 물류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14년 현대오일터미널 준공식 모습

사진 왼쪽부터 김성달 울산소방서장, 김용태 울산세관장, 박성환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채익 새누리당 국회의원,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 정수철 울산항만청장,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 김종욱 울산해양경찰서장

“현대오일터미널의 유류저장 사업은 정제 분야에 치우쳤던 현대오일뱅크의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대오일터미널 안창희 대표 인터뷰 중에서

안정적인 수입 기반 확보, 현대케미칼

2014년 롯데케미칼과 1조 2,000억 원 규모의 MX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첫 합작법인인 현대케미칼이 출범했다. 현대케미칼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내 22만㎡(6만 5,000평) 부지에 들어서며 오는 201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대케미칼은 향후 연간 100만 톤에 이르는 MX를 생산해 롯데케미칼과 현대오일뱅크 자회사 현대코스모에 공급,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하루 6만 배럴의 등·경유 제품은 현대오일뱅크가 전량 수출하고, 경질납사 100만 톤은 롯데케미칼에 공급될 예정이다.



2014년 현대케미칼 창립 총회 및 이사회 모습
사진 왼쪽부터 현대오일뱅크 권오갑 사장, 롯데케미칼 허수영 사장

“국내 정유업계의 판도를 뒤바꿀 MX공정을 2016년까지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현대케미칼 강명섭 대표 인터뷰 중에서



▲ 2012년 완공한 제8 FBC보일러

▼ 2014년 완공한 제9 FBC보일러



집단에너지 사업의 토대, 최첨단 열공급 설비(FBC)

첨단 열공급 설비(FBC)는 저유황 중유를 기반으로 한 기존 설비와 달리 국내 최초로 원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유코크스를 연료로 스팀을 생산한다. 원가 경쟁력을 갖춘 스팀은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이용되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정의 열원으로 쓰이기도 한다.

2012년 제8 FBC보일러 준공으로 시간당 220톤의 스팀을 생산, 연간 500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내고 있으며, 2014년 9월 제9 FBC보일러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향후 대산공장 인근 석유화학공단에도 스팀을 공급해 지역 산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XTeer

윤활유사업 진출, 엑스티어(XTeer) 출시

2013년 윤활유 신제품 '엑스티어(XTeer)'를 출시, 엔진오일 시장에 진출했다. 윤활유는 고도화 공정에서 나오는 잔사유를 처리해 만든 윤활기유에 각종 첨가제를 혼합해 생산하는 제품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쉘과 합작해 윤활기유 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윤활유 제품까지 자체 생산하면서 수직계열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연간 18만 배럴의 제품을 생산, 전국 2,400여 개 주유소 및 차량 경정비 네트워크로 유통망을 확대해 국내외 윤활유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지사 설립

싱가포르와 상해에 법인을 설립하고 두바이, 하노이, 런던에 지사를 확충하는 등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첨단 설비 증설을 통해 늘어난 제품 물량을 해외시장에 적극 수출하기 위해서다.



최고의 품질을 위한, 중앙기술연구원 개원

성남 판교에 중앙기술연구원을 개원했다. 중앙기술연구원은 다양한 연구활동 및 기술 인재 확보를 통해 현대오일뱅크 R&D의 심장으로서 거듭나고 있다.



▲ 사진 왼쪽부터 울산대 김재성 교수, KAIST 유룡 교수,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 현대중공업 민계식 회장, 현대오일뱅크 권오갑 사장, 강달호 중앙기술연구원장

HUMANITY

- 동행
- 상생

同行

—

사랑가득 희망에너지!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기부 활동을 통해 기업의 기부 문화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나눔재단’을 설립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동행의 기쁨을 시나브로 키워 나가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제2, 제3의 아름다운 나눔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임직원의 진심이 이웃에게 닿기를 기대한다.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



朝鮮日報

2012년 09월 17일 월요일 A35면 사람들 20.6 x 19.4 cm

월급 1% 평생 기부... 그 울림은 컸다

실질 1년 맞은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

지난달 말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 사무국에 뜻밖의 전화가 걸려 왔다. 충남 서산시 대상 공장에서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는 협력업체 상산STA의 여직원 송수영이었다. 그녀는 "비록 적은 액수지만 버스 운전 기사들이 월급 1% 나눔에 동참해 어려운 여운을 줄고 싶어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상산STA 직원 22명 전원은 그날로 약정을 맺고 월급 1% 기부부를 시작했다.

지난달 말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 임직원들이 급여명세서로 공제받는 '급여 1%' 라는 새 항목이 생겼다. 월급 1%씩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금으로 자동 적립하는 이 운동은 '나눔의 정령'을 회사 안으로부터 온 사원으로 확산시켜 나갔다. 모친상을 치른 한 임원은 부의금 명세서에 기탁했고, 연아를 돌보는 결혼시킨 김태연도 자동 적립금에 참여했다. 상산STA 직원 송수영은 '나눔의 정령'을 회사 안으로부터 온 사원으로 확산시켜 나갔다. 모친상을 치른 한 임원은 부의금 명세서에 기탁했고, 연아를 돌보는 결혼시킨 김태연도 자동 적립금에 참여했다. 상산STA 직원 송수영은 '나눔의 정령'을 회사 안으로부터 온 사원으로 확산시켜 나갔다. 모친상을 치른 한 임원은 부의금 명세서에 기탁했고, 연아를 돌보는 결혼시킨 김태연도 자동 적립금에 참여했다.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이 지난 7월 총회(좌)를 앞두고 서울 서남구 신촌동에서 지역에서 노인들에게 생계담을 제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제2인사를 맡고 있는 김원호, 최수영씨, 김창기 이사장, 장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

“직원들 첫 참여율 96% 흔쾌” 협력업체도 실시할만 보태 부의금-축의금 재단에 기탁 이재민·조은가정 등 지원

연간 사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설도 높았다. 참여자 모두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수십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제도권에서 소외받는 여성신과 청소년을 위해 사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다양한 실험안을 마련했다. “1% 사각지대 희망공과 프로젝트”를 통해 매월 한 차례 자선 위 계층을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필요한 불운을 지원하고, 조은(희원)·결혼 기원 어린이들에게 1년간 학습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랑의 여우의 흔적’도 시작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대학 진학이 어려운 학생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 ‘희망’을 위한 ‘희망 에너지 장학사업’도 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

한다.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1% 나눔 정령’은 이달 말 서울 시내 노인복지관 등에 제도권에서 소외받는 여성신과 청소년을 위해 사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다양한 실험안을 마련했다. “1% 사각지대 희망공과 프로젝트”를 통해 매월 한 차례 자선 위 계층을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필요한 불운을 지원하고, 조은(희원)·결혼 기원 어린이들에게 1년간 학습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랑의 여우의 흔적’도 시작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대학 진학이 어려운 학생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 ‘희망’을 위한 ‘희망 에너지 장학사업’도 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

朝鮮日報

2012년 09월 17일 월요일 A35면 사람들 20.6 x 19.4 cm

“월급 1%, 한달 교통비 맞먹지만... 흔쾌히 서명”



“월급 1% 나눔이 어려운 현대오일뱅크 직원들... 그 울림은 컸다”

사실상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이 지난 7월 총회(좌)를 앞두고 서울 서남구 신촌동에서 지역에서 노인들에게 생계담을 제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제2인사를 맡고 있는 김원호, 최수영씨, 김창기 이사장, 장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이 지난 7월 총회(좌)를 앞두고 서울 서남구 신촌동에서 지역에서 노인들에게 생계담을 제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제2인사를 맡고 있는 김원호, 최수영씨, 김창기 이사장, 장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

“현대오일뱅크 노사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이웃을 위해 급여 1%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현대오일뱅크의 작지만 위대한 출발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전하고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러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나의 급여 1%가 우리나라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한다는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2012년 2월,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 출범식, 김창기 이사장 인사말 중에서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 현판식

“ 월급 1% 평생 기부, 그 올림은 컸다. 현대오일뱅크는 월급 1%나눔의 정을 회사 안으로부터 온 사회로 확산시켜 나갔다. 모친상을 치른 한 임원은 부의금 일부를 재단에 기탁했고, 사내 체육대회에서 받은 우승 상금, 사보 원고료, 본인 결혼 후 돌리던 떡값을 아낀 금액도 차곡차곡 쌓여 갔다. ”

2012년 9월 17일 조선일보 기사 발췌

“ 선뜻 급여 1% 기부를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에 아이들 학원비, 관리비 등을 내고 시할머니에 시부모까지 모시면서 아등바등하는 아내에게 말 꺼내기가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우리보다 힘든 사람 돕는데 뭐가 고민이냐’고 오히려 편잔을 주더라고요. ”

영업본부 강태원 차장

“ 어머니가 지병을 앓고 있어 한 번 입원하면 수백만 원씩 목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내 집안만 챙기느라 주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

23년차 현장 근로자인 장래경 과장

“ 입사 전에는 솔직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도 했지만, 제 생애 첫 월급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쓴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

2012년 신입사원 홍진덕

급여 1%나눔은 본인이 중단의 뜻을 밝히지 않을 경우 퇴직 시까지 매월 급여공제 형태로 기부하게 되며, 2014년 5월 기준 1,820명 임직원 중 1,754명, 약 96.4%가 참여하고 있다.

급여 1%가 만드는 기적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도 한다. 어려운 현실에 처한 어린이들을 위해 장학금과 후원활동을 펼치고, 갑작스레 사고를 당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등 여러 계층을 위한 실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웃을 위해 희망을 짓다

2013년 국제구호개발단체 굿네이버스와 손잡고 베트남 푸옌광주 썬남의 빈곤 아동들에게 미래의 꿈을 키워 갈 유치원을 완공했다. 썬남 유치원 외에도 베트남 티엔케 지역에 초등학교 건립을 지원하는 등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학교 건립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회 곳곳으로 퍼지는 1%나눔

현대오일뱅크에서 시작된 급여 1%나눔은 포스코, 삼성토탈, 미래에셋, 한국수자원공사 등 산업계 곳곳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 대산 본사 셔틀버스 운행업체인 성신STA, 대동항업 등 협력업체, 임직원 가족 및 지인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수익 1% 기부에 동참한 자영주유소 대표들의 모습



급여 1%나눔에 동참한 협력업체 성신STA(사진 왼쪽)와 대동항업(사진 오른쪽) 직원들의 모습

수익 기부 1%나눔주유소 출범

현대오일뱅크는 급여 1%에 이어 전국 180여 개 직영주유소의 순익 1%를 기부하고 있으며, 자영주유소도 자발적으로 1%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



“ 현대오일뱅크가 전 직원의 주유소 현장 근무를 의무화했다. 권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시작으로 모든 직원이 공휴일이나 주말을 활용해 주유소 근무를 하게 된다. 현대오일뱅크는 직원들의 주유소 근무수당을 주유원 시급으로 환산해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다. ”

2010년 9월 17일 동아일보 기사 발췌

이웃과 함께 나눔을 생활화하다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팀별, 개인별 자발적으로 복지기관 일손돕기, 다문화 가정 및 독거노인 방문, 김장 담그기, 집수리 등 사회 곳곳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과 나눔을 전하고 있다.



행복나눔 봉사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는 임직원들의 모습

지역 발전의 선순환에 기여하다

대산공장 인근에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실내체육관, 현대대죽공원, 화곡저수지 둘레길을 준공해 임직원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역 상생을 위한 장학재단, 우럭치어 방류, 지역 쌀 수매 사업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대죽공원 ▶



◀ 화곡저수지 둘레길

지역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다

프로축구팀이 따로 없어 축구 경기를 관람할 기회가 없는 지역 주민을 위해 충남 서산에 최초로 K리그 경기를 유치,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또한 문화 생활의 기회가 적은 주민들을 위해 연극, 음악회, 입시 설명회 등 다양한 정보와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K리그 서산 자선경기에서 먹거리 장터를 펼친 사택 부녀회 모습

▼ 서산에서 열린 울산현대와 대전시티즌의 K리그 자선경기 모습



▲ 서산지역 고교생 및 학부모를 위해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 모습



▲ 서산시민들을 위해 연극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선보이는 모습



실버·장애인과 일하는 즐거움을 나누다



▲ 부산 신시가지오일뱅크에서 12년째 근무하는 실버 인력, 김기영 반장의 모습

▼ 세차 도우미로 활동하는 장애우들의 모습



실버 세대와 장애우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공감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일선 주유소에 실버 주유원의 채용을 늘려 근로를 통한 자아실현과 사회참여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공단과 연계해서는 장애유형별 훈련모델과 인성 및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장애우들도 충분히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심어 주고 있다.



◀ 현대오일뱅크 체육대회에 연평부대원을 초청, 친선 경기를 치르는 모습



▲ 안보견학차 연평부대에서 훈련받는 임직원 자녀들의 모습

연평부대와 자매결연을 맺다

현대오일뱅크는 매년 연말 군부대를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계 초소들을 돌아보며 안보태세에 대한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고, 각종 운동기구 등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기도 한다.

HUMANITY

- 동행
- 상생

相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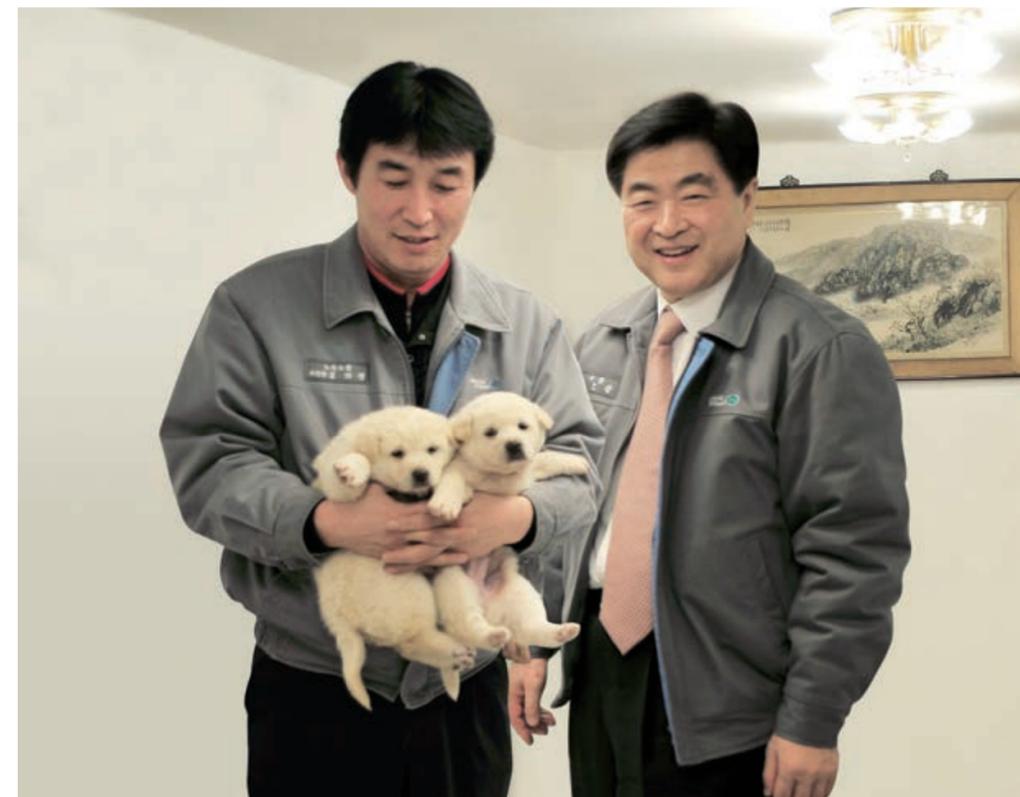
—

조화의 에너지로 정상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10년 가까이 외국계인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 계열로 있다가 2010년 8월, 다시 현대중공업 가족이 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편입 후에는 개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은 물론 스킨십 제고, 노사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미래지향적인 상생발전,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

협력적 노사관계

2012년 덕수궁에서 소통과 화합의 뜻깊은 시간을 가진 노사의 모습



노동조합 창립 25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협상을 사측에 위임했고, 권오갑 사장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진돗개 두 마리 '신뢰'와 '희망'이를 선물했다.

“직원들과 늘 대화하며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성장시켜 나갈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는 진돗개 한 쌍처럼 노사관계도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갑시다.”

권오갑 사장

“임금위임과 무파업을 결정하기까지 쉽지는 않았지만 현대중공업 가족으로 새출발하는 회사를 위해 노조가 뜻을 모았습니다.”

김태경 노조위원장

2011년 1월, 임금위임 및 무파업 선언식에서



경쟁력 확보에
힘쓰는 **勞**



소통 강화에
주력하는 **使**



노조측은 노동조합을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는
회사측의 진정성에 최고의 회사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다짐으로 화답했다. 그리고 그룹 계열사 노동조합과
지역주유소 대표들을 직접 만나 그 뜻을 함께 했다.



경영진은 매주 공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등산,
단합대회 등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며 화합에 힘써 왔다.
노조측과 함께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쌓고 있다.



임직원 소통과 공감

“현대는 나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기능공들
그리고 모든 임직원이 함께 이룬 회사이며,
함께 만들었으니 우리는 다 같은 동지들이다.”

정주영 명예회장님 말씀 중에서



50주년을 맞아 산행에 참가한 임직원들의 모습

한마음 체육대회로 하나로 단합하다

해마다 전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통해 화합을 다지고 있다.



家長의 마음으로 조직문화를 이끈다

◀ 사장 전용 차량인 에쿠스를 임직원 경조사용으로 사용하도록 반납했다.
▼ 임직원 배우자 및 자녀, 부모님 등 가족 초청 행사를 개최해 가족의 정을 나누고자 노력해 왔다.



미래를 이끌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다



▲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외 시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리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어떤 직원이라도 해외에 파견되었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목표로 매주 2회 이상 영어, 중국어 등 원어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의 해외 진출 현황을 체험하고 글로벌 감각 고취를 위해 해마다 신입사원 자주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동반성장 파트너십

협력업체도 우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협력업체 전용 공간, 한마음관 전경



협력업체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식당과 샤워시설, 라커룸 모습

“ 협력업체 직원들도 우리 회사를 위해 일하는 동반자이자 소중한 가족인데 낯은 컨테이너에서 지내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최소한 우리의 아이들이 아빠 회사에 놀러 왔을 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2012년 4월, 한마음관 준공식, 권오갑 대표이사 사장 축하 중에서

주유소 사장단과 소통하다



▲ 전국 우수 주유소 사장단을 초청, 해외 사은행사를 통해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 전국 우수 주유소 사장단과 함께 송년행사를 개최, 한 해 동안의 협력에 감사하며 소통하고 있다.



▲ 주유소 경영인 배우자를 위해 개최하는 '퀸즈파티', 매년 새로운 컨셉으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 최우수 주유소 경영인 부부 대상 힐링 캠프인 '힐라비'에 참가한 부부의 모습



고객 감동 마케팅



“고객을 위하는 회사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고객 사랑은 현대오일뱅크 경영철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를 위해 전국 주유소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한 ‘웰컴 오일뱅크’ 캠페인과 고객센터 운영,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평가·포상 시스템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귀를 기울이며 주유소 시장에 새바람을 불어넣었다.”

2010년 10월 20일 한국경제신문 기사 발췌



드림콘서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다

1995년부터 개최된 드림콘서트 모습



K리그 타이틀 스폰서

축구 팬들에게
짜릿한 경기로 보답하다



K리그 타이틀 스폰서 후원 모습



FUTURE

飛上

—

미래를 향한 또다른 기회,
세계 최고의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2010년 현대중공업 가족의 일원으로 새롭게 출발한 현대오일뱅크는 사업다각화,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해 세계로 비상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을 이끌어 온 현대오일뱅크. 2020년 매출액 50조를 목표로 세계 무대 진출의 초석을 다져 나간다.

VISION 2020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에너지기업”

- 최고의 생산성을 갖춘 에너지기업
- 해외사업 확장을 통한 글로벌기업으로 도약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
- 매출액 50조 영업이익 2조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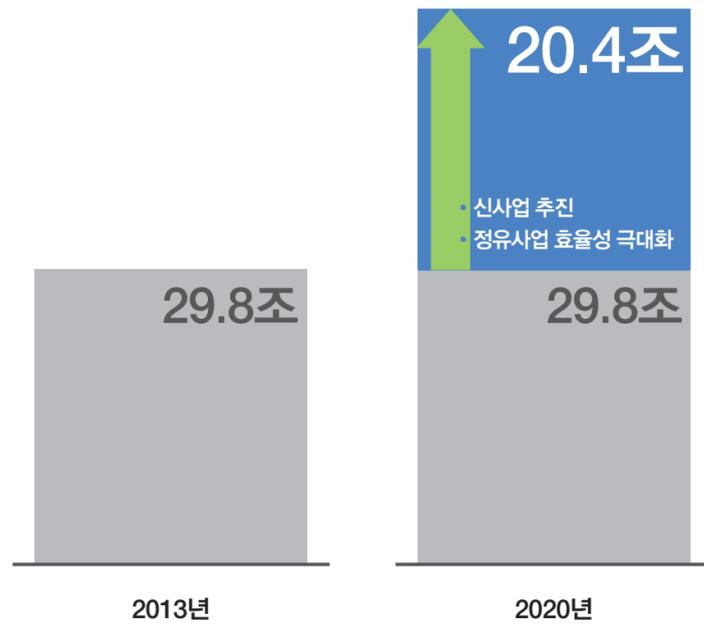


VISION 2020

2020년 경영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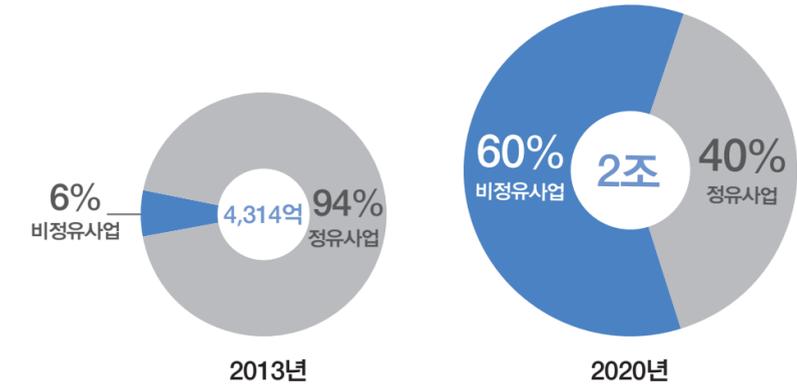
매출 50조 원

원유 도입 다변화 및 원가 절감, 공정개선 등을 통한 효율성 증대로 정유사업 수익성 1위를 유지하고 미래성장동력이 될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매출 50.2조 원을 달성하고 종합 에너지 회사로의 기반을 확보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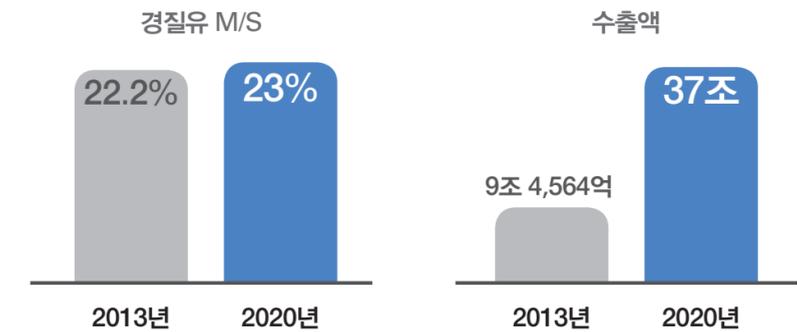
영업이익 2조 원

석유정제과정에서 산출되는 부산물을 활용한 석유화학 신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 다각화로 2020년 영업이익 2조 원 달성, 중장기적으로 비정유사업이 영업이익의 60% 이상 되는 수익성 다변화를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내수/수출

국내 경질유 시장점유율을 23%대로 유지, 판매효율화를 통해 내수시장 수익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해외법인 및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 공격적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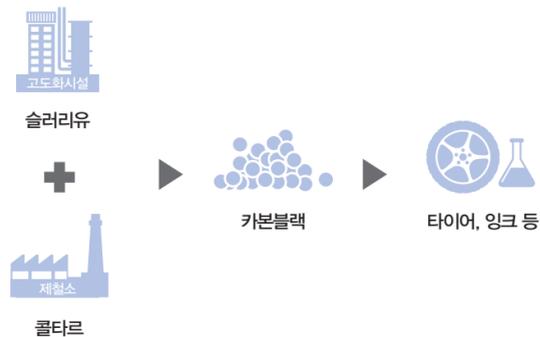
VISION 2020

미래를 이끌어 갈 신규사업



카본블랙 사업

카본블랙은 고도화 시설에서 나오는 슬러리유와 제철소에서 석탄을 떨어뜨릴 때 나오는 콜타르를 함께 불완전 연소시킬 때 생기는 그을음으로 만드는 미세한 탄소분말이다. 주로 자동차 타이어, 튜브 등 고무제품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용도로 쓰이며 잉크, 페인트, 플라스틱 제조에도 사용된다. 최근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자동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카본블랙의 수요도 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국내외 제철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카본블랙 사업을 미래 새로운 먹거리로 키워 나갈 예정이다.



프로필렌유도체 사업

프로필렌은 2개의 탄소가 하나의 이중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 화합물이다. 고도화 설비의 유동층 촉매분해공정(RFCC)에서 부산물로 생성된다. 프로필렌과 다른 물질을 화학적으로 합성해 석유화학산업의 다양한 원료를 만드는 것이 프로필렌유도체 사업이다.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 자동차 내장재 및 단열재의 원료가 되는 프로필렌 옥사이드, 아크릴섬유의 원료인 아크릴로니트릴, 포장용 비닐의 원료인 PVC 등이 있다.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프로필렌 유도체 사업은 꾸준한 수요증가에 따라 앞으로도 전망이 매우 밝다.





MX제조 사업

혼합자일렌(MX)제조 사업은 콘덴세이트를 도입해 경질납사와 혼합자일렌 등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혼합자일렌은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페트병의 원료인 파라자일렌(PX)을 생산하는 제 2BTX의 원료로 쓰인다.

현대오일뱅크는 롯데케미칼과 합작, 2014년 현대케미칼을 설립했으며 2016년 상업가동을 목표로 대산공장에 MX제조 설비를 건설 중이다. MX 공정에서 생산되는 연간 100만 톤 규모의 혼합자일렌은 연간 2조 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3조 원의 수출증대 효과 등 안정적인 수익 기반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제2 윤활기유 사업

윤활기유는 고도화 공정에서 나오는 감압잔사유(VR)를 재처리해 생산되며 윤활유 제품의 기초 원료가 된다.

현대오일뱅크는 글로벌 기업 셸(Shell)과 합작, 2012년 현대셸베이스오일을 설립해 윤활기유 사업에 적극 진출했다. 2014년 상반기, 대산공장에 하루 2만 배럴 처리 규모의 윤활기유 공장을 준공해 본격적인 상업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그룹2 윤활기유를 생산하는 제2 윤활기유 공장을 추가 신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APPENDIX

- 연표
- 광고 변천사
- 브랜드·주유소 변천사

발자취

—

1964~2014

현대오일뱅크의 지난 50년,
열정으로 가득한 도전에너지를 뒤돌아봅니다.

1960_

연도	주요 내용
1964.11	극동석유공업(주) 설립
1965.12	하루 3,000배럴 부산공장 준공
1969.01	극동셀석유(주)로 사명 변경
1969.05	고급 윤활유배합공장 준공
1977.05	극동석유(주)로 사명 변경
1977.06	셀과 합작 종료, 현대가 지분 50% 인수
1978.08	부산공장 원유처리 하루 1만 배럴 증설
1981.03	극동도시가스(주) 설립
1988.11	극동정유(주) 사명 변경
1989.11	하루 6만 배럴 대산공장 준공(대통령 표창)

1990_

연도	주요 내용
1993.06	현대그룹이 극동정유 인수
1993.07	현대정유(주)로 사명 변경
1994.06	국내 최초 주유소 브랜드(OILBANK) 개발
1995.05	현대정유판매주식회사 출범
1996.01	정몽혁 대표이사 사장 취임
1996.05	대산공장 20만 배럴 증설
1996.04	옥계저유소 준공
	군산저유소 준공
1997.07	부산공장 폐쇄
1997.12	무역의 날 10억 불 수출탑 수상
1998.05	연산 40만 톤 제1 BTX 설비 준공
1999.04	한화에너지 인수 및 한화에너지프라자(주) 합병
1999.07	한화에너지, 인천정유(주)로 사명 변경
1999.11	아랍에미리트연합(UAE) IPIC와 합작계약 체결

2000_

연도	주요 내용
2000.01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
2002.04	현대오일뱅크(주)로 사명 변경
	서영태 대표이사 사장 취임
2003.08	인천정유(주) 계열 분리
2005.11	청정연료설비(CFP) 준공
2006.03	대산본사 실내체육관 완공
2006.11	국가고객만족도(NCSI) 주유소서비스부문 1위
2007.03	5만 2,000배럴 규모 제주저유소 상업 가동
2007.03	비전2012 선포
2007.12	성남기술지원센터 개소
2008.04	일본 코스모와 전략적 MOU 체결
2008.12	무역의 날 30억 불 수출탑 수상
2009.03	한국윤리경영 대상 수상
2009.11	코스모와 <HCP> 설립(現 현대코스모)
2009.12	무역의 날 50억 불 수출탑 수상

2010_

연도	주요 내용
2010.08	현대중공업그룹 편입
	권오갑 대표이사 사장 취임
2011.01	상해, 두바이 지사 설립
2011.08	현대대죽공원 준공
2011.09	제2 고도화 설비 준공
2011.11	판교에 중앙기술연구원 개원
2012.01	제1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 수상
2012.01	상해지사에서 상해법인으로 전환
2012.02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 설립
2012.02	유류저장 사업 자회사 <현대오일터미널> 설립
2012.04	셀과 윤활기유 합작사 <현대셀베이스오일> 설립
2012.04	협력업체 후생동 '한마음관' 준공
2012.08	베트남 지사 개소
2012.09	제8 FBC 보일러 준공
2012.12	무역의 날 80억 불 수출탑 수상
2013.04	제2 BTX 설비 준공
2013.08	윤활유 엑스티어(XTeer) 출시
2014.01	롯데케미칼과 MX사업 합작사 <현대케미칼> 설립
2014.04	현대오일터미널 준공
2014.04	윤활기유 설비 기계적 준공

광고 변천사

TV광고



1991년 대산공장준공 편



1993년 새이름 편



1994년 자동차 경주 편

TV광고



2003년 웰컴 오일뱅크 노래 편



2003년 웰컴 오일뱅크 배웅 편



2004년 웰컴 오일뱅크 당신의 가족까지 편

광고 변천사

TV광고



2004년 경보 편



2005년 차도 이 맛을 안다 편



2005년 전투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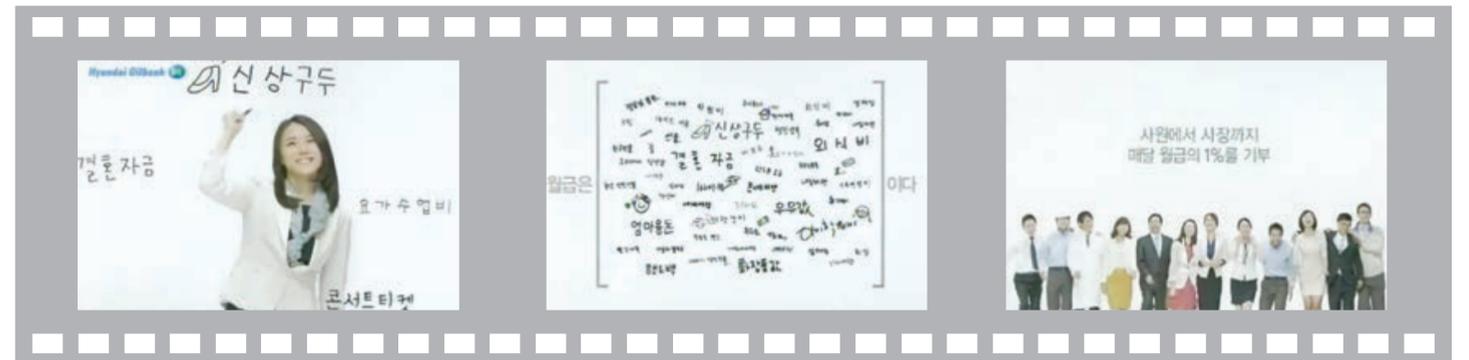
TV광고



2007년 아랍왕자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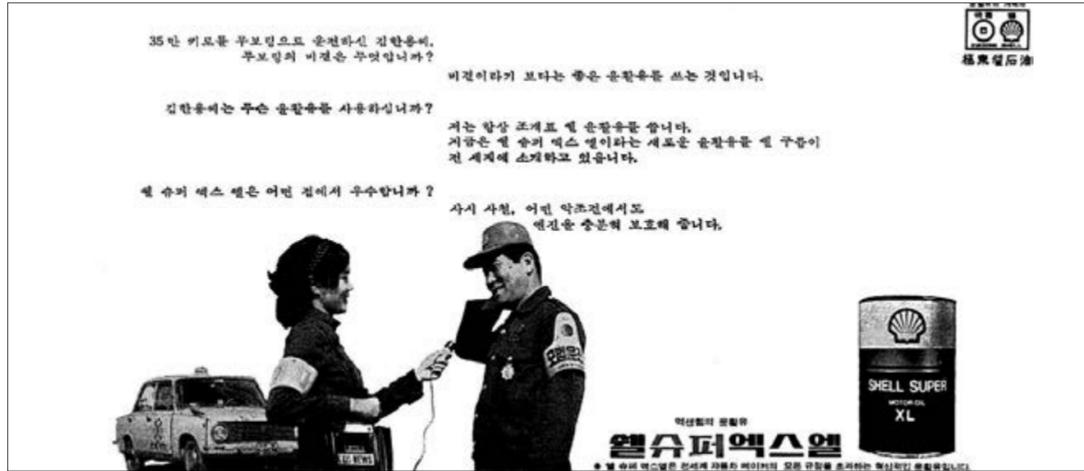
2007년 신고하자 편



2011년 급여1% 나눔 편

광고 변천사

지면광고



1972년 엑센 힘의 윤활유 편



1986년 극동셸 윤활유 제품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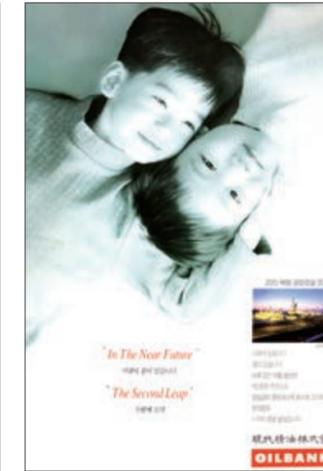
지면광고



1994년 오일뱅크는 新 주유소입니다 편



1995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편



1996년 20만 배럴 공장증설 준공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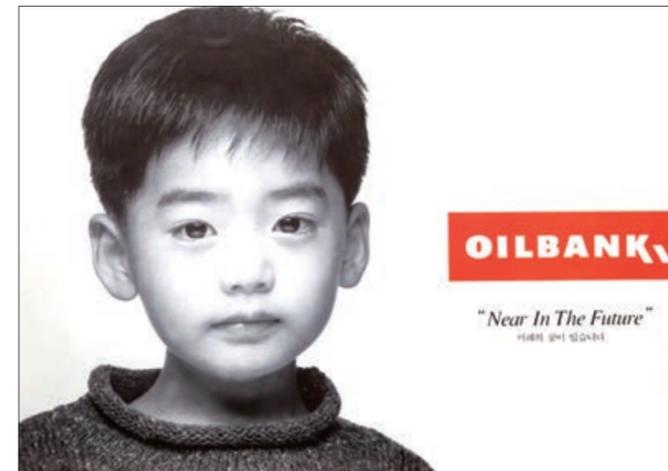
1996년 드림콘서트 '96 편



1989년 크린에너지를 열어가는 극동정유 편



1993년 석유의 고향은 자연 편



1997년 Near In The Future 편



1997년 서비스 1등상 편

광고 변천사

지면광고



1998년 어린이 모델 편



1998년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편



1998년 제2콤플렉스 준공 편



1998년 JOY WHITE '98 편

지면광고



1999년 현대정유 업계 최초 Y2K 종합부문 인증 획득 편



1999년 Color O'clock '99 편



2000년 현대오일뱅크 보너스카드 편



2003년 Welcome Oilbank 편



2004년 차를 잘 아니까 편

광고 변천사

지면광고



2005년 오일뱅크 주니어 스키대회 편



2008년 러브레터 편



2010년 현대중공업 가족 편



2011년 제2 고도화 설비 준공 편

지면광고



2012년 1%나눔재단 편



2012년 대학생 마케팅 IDEA 공모전 편



2013년 현대가 만든 엔진오일 편



2013년 대학생 마케팅 IDEA 공모전 편

ADVERTISING

브랜드·주유소 변천사



1968년 ~



극동정유주식회사
KUKDONG OIL COMPANY, LTD.

1988년 ~



1994년 ~



2004년 ~



100년을 향한 희망과 나눔

현대오일뱅크 창립 50주년 기념 화보집

발행처 현대오일뱅크
발행인 권오갑
발행일 2014.07.01
기획·제작 FK미디어
인쇄 보리문화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승인 없이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